

太宰治의 「斜陽」의 主題에 관한 考察

박 정 순*

I. 序 言	III. 結 語
II. 本 論	

I. 序 言

不過 四十年의 길지도 않은 生涯동안에 몇번씩이나 自殺未遂를 겪은 끝에 마침내 夫人과 친구에게 몇通의 遺書를 子女에게 玩具를, 그리고 연재소설의 草稿를 책상 가에 남겨두고 家出하여 한 戰爭未亡人과 함께 玉川上水에 投身하여 寂寥하고 덧없는 情死로(이들의 情死는 이렇게 表現될 수 밖에 없으리 만큼 시들한 것이었다) 生을 끝낸 太宰治(1909~1948)의 生涯와 문학은 그 죽음 못지 않게 常識의 世界에 對한 反逆과 拒否로 始終한다. 『『晩年』は私の最初の小説集なのです. もう, これが私の唯一の遺書になるだらうと思いましたが. 題も『晩年』として置いたのです. —當時私には一日一日が晩年であった.—』¹⁾ 그는 처녀 출판한 처녀 창작集에 『晩年』이라고 命名할 만큼 遺書를 쓰는 마음으로 창작을 했던 것이다. 처녀 창작集인 晩年の 첫번째 단편, 『葉』의 첫머리에 「撰ばれてあることの恍惚と不安と二つわれにあり」라는 Verlaine의 詩가 引用되어 있고 곧이어 三行째에는 太宰의 序文이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死なうと思ってゐた. ことしの正月よそから着物を一反もらった. お年玉としてである. 着物の布地は麻であった. 鼠色のこまかい縞目が織りこめられてゐた. これは夏に着る着物であらう. 夏まで生きてみようと思った.」²⁾

더없이 아름답고 고즈넉하며 生과 死에 대한 太宰의 생각이 잘 表現되어 있는 文으로 생각된다.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常態이고 여름까지 살아 남아 있겠다고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應變의 처지인 것이다. 人間에게 산다는 것이 肯定이고 죽는다는 것은 否定인데 太宰治

* 文理科大學 日語日文學科(대천) 助教授

1) 唐木順三, 自殺について, 文藝讀本, p.132 의거

2) 창작집 「晩年」中の 短篇 「葉」

에게 있어서는 산다는 것은 肯定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에 대한 否定으로되어 있는 것이다. 太宰의 生の 持續은 죽음과 바로 인접되어 있으며 그의 作品에 始終一貫하여 如實히 吐露되고 있는데, 처녀창작集의 冒頭에 나온 이 첫부분은 그의 文學의 Prologue 구실을 하는 暗示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³⁾.

太宰의 용모와 體格은 分裂型이며, 그의 文學的 特質과 生涯는 分裂性氣質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精神醫學的 見解도 있는데, 사실, 小説「斜陽」을 보면, 다음에 引用되는 바와 같이 精神分裂症에 수반되는 소위 幻覺作用의 現象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壁から忍び笑ひがきこえて來て……」

「お父上の亡くなられた日の夕方, お庭の池のはたの木という木に蛇がのぼっていたことは私も實際に見て知ってゐる。(中略) そのつつじの枝先に, 小さい蛇がまきついていた. すこしおどろいて, つぎの山吹の花枝を折ろうとすると, その枝にも, まきついていた. 隣りの木犀にも, 若楓にもえにしだにも, 藤にも, 櫻にも, どの木にも, どの木にも, 蛇がまきついていたのである」⁴⁾

그러나 本稿에서는 精神醫學的 分野에 속하는 太宰治의 精神世界를 分析 追究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文藝的 側面에서 작품을 분석 검토하여 그의 文學的 精神世界를 理解, 把握함으로써 敗戰後의 現代社會를 舞臺로 現代人이 쓴 小説을 통해 戰後初期 日本의 文學的 感覺과 文學的 精神에 接近하는 한 方途로 삼으려 한다.

小説「斜陽」은 太宰治의 自傳的 要素가 濃厚할 뿐만 아니라, 當時의 日本社會變化의 藝術的 體現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죽기 바로 전 해인 末期의 作品으로 前期, 中期, 後期 전반에 걸친 그의 文學的 主題와 技法과 理想像등 그의 모든 것을 投入集約한 一世一代의 교향악적 Romance 라고 할 수 있으며 太宰治 文學研究의 素材로서 많은 作品中 발체되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Ⅱ. 本 論

1.

太宰治 全集의 第九卷 後記의 「斜陽」解題에 依하면「斜陽」은 昭和二十二年(1947年) 二月下旬에 집필이 착수되어 그해 「新潮」七, 八, 九, 十月號 四회에 걸쳐 發表되고 同年 十二月에 新潮社에 依해 刊行되었다.

황폐한 戰後社會의 混沌속에 「斜陽」이 出現하자 이 作品을 契機로 소위 斜陽族, 斜陽階級

3) 小野正文著, 太宰治をどう讀むか, p.16 의거

4) 太宰治 「斜陽」

과 같은 新語가 巷間에 流行되고 太宰治는 戦後 문학의 챔피언이 되었다. 沒落貴族에 관한 素材의 ㅅㅅ도 있거니와 當時의 一般讀者 대중의 관심은 일종의 甘美로운 センチ멘털리즘이 그 全部이었다. 물론 그때문에 「斜陽」이라는 小説이 한층 더 강한 呼訴力으로 世上에 받아들여졌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皮相的 感傷性때문에 「斜陽」은 誤讀되었고 이 作品의 眞正한 主題가 제대로 把握되지 못한 것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小説의 主題 혹은 motif는 흔히 世上에 받아들여진 것처럼 甘美롭고 哀傷的인 センチ멘털리즘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奥野健男에 依하면 資本主義社會의 메카니즘으로부터 탈락되어 疏外된 者의 反逆, 敗北, 滅亡의 美 등의 精神構造야말로 斜陽의 主題와 motif의 眞面目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⁵⁾ 이것은 처녀창작집 「晩年」以來 始終一貫해 온 太宰治의 不變한 文學精神이며 또한 그의 生에 대한 정신적 姿勢이기도 하다. 既存秩序와 常識에의 拒否, 勝利를 前提로 하지 않는 反逆과 屈服치 않는 敗北과 그런데서 오는 滅亡의 思念이 發하는 美, 即 滅亡의 美學이 「斜陽」의 基層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 小説의 眞正한 意味의 主題와 motif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선 세가지의 主題로서 成立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첫째 주제로, 斜陽이라는 表題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沒落에의 挽歌를 들 수가 있다. 이 主題야 말로 太宰治의 滅亡의 美學의 具現인 것이다. 둘째로, 既存秩序와 常識에 대한 拒否와 反逆을 거친 再生에의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세번째로, 母性에 대한 憧憬이라고 할 수 있는 母性的 image를 들 수가 있다. 이상 列擧한 세가지 主題에 관한 詳細를, 作品에 登場하는 人物의 人間像을 中心으로 追求해 봄으로 考察해 나가기로 한다.

첫번째 主題인 沒落에의 挽歌 또는 滅亡의 美를 體現하고 있는 것은 作中の 어머니로서 天性的인 진정한 貴族이며 「最後의 貴婦人이다」⁶⁾ 두 子女의 사랑과 존경을 온몸에 받고 있다. 無意味하고 形式的인 뿐인 格式이나 禮法같은 것에서 自由로이 벗어난 天性的인 아름다움을 지닌 言動이나 마음씀이 天爵을 느끼게 하는 나이브한 人品이다. 수우프를 먹는데에도 婦人雜誌等에 나오는 格式과는 전혀 다르나, 보기 좋하지 않으며,

「スープに限らず、お母さまのお食事のいただき方はすこぶる禮法にはずれている」⁷⁾

그밖의 소위 形式的인 禮法에서 탈선하는 일도 어머니가 하시면 우아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므로 아들인 直治는 다음과 같이 경탄한다.

「しんの貴族は、あんな岩島みたいな下手な氣取りかたなんか、しやしないよ。おれたちの一族でも、ほんものの貴族はまあママくらいのもだろう。あれはほんものだよ。かなわねえところがある。」⁸⁾

5) 奥野健男, 太宰治論 의거

6) 太宰治 「斜陽」

7) 上掲書

8) 上掲書

「お金のことは子供よりも、もっとわからないお方」⁹⁾

돈에 관해서는 어린아이 보다도 모르는 분이고 그 信賴心의 아름다움은 딸 かず子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언젠가 딸 かず子の 부주의로 작은 화재가 發生했는데,

「なんでもない事だったのね。燃やすための薪だもの」¹⁰⁾

라고 가볍게 넘겨 버린다. 경제적으로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딸 かず子로 하여금 인척 관계인 皇室家に 집안 일을 돌보는 役을 맡도록 친정의 남동생의 指示가 있었지만 딸의 反對에 그만 수그러져,

「かず子, 着物を賣りませうよ。二人の着物をどンドン賣って思ひ切りむだ使ひしてぜいたくな暮しをませうよ。私はもうあなたに畑仕事などさせたくない。高いお野菜を買ったっていいじゃないの」¹¹⁾

라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같은 것을 가볍게 넘기고 전혀 문제삼지도 않는다. 生存을 위한 生活의 努力을 放棄하고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優雅한 貴族의 生活를 固守하며 친한 타협이라든가 추악한 고집을 避하는 天性은 宿命的인 滅亡을 기다린다. 죽음에 대해 超然하고 凡事에 悠然自若하다. 世俗의 階層의 貴族이 아니라 太宰의 理想的 貴族像의 具現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어머니는 斜陽의 슬픔을 美로 昇華시키는 滅亡의 美學의 具現이다. 生命으로부터 完全히 解放된 自由롭고 홀가분한 生存의 姿勢는 日本 古典文藝에서 보는 「かるみ」의 境地를 연상하게 한다. 作中の 딸 かず子는 그러한 어머니에게서 「どこやらデカダンと紙一重のなまめかしさ」¹²⁾를 느낀다. 頹廢的 美마저 느낀다고 풀이할 수 있는 表現이다.

「ああ、お母さまのやうに、人と争はず、憎まざうらまず、美しく悲しく生涯を終る事の出来る人は、もうお母さまが最後でこれからの世の中には存在し得ないのではなからうか。死んで行くひとは美しい。」¹³⁾

어머니는 現實로부터 遊離된 生活方途를 보여 주며, 本質적으로 이 乘의 밖에 있는 存在로서 滅亡 그 自體라고 할 수 있고, 現實性의 缺如만으로 意味가 부여 되어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性格은, 戰爭中에 쓰여진 太宰治의 中期作品 「右大臣實朝」에서 이미 太宰의 理想像으로 그려진 主人公實朝의 無垢한 image의 延長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アカルサハ, ホロビノ姿」¹⁴⁾라고 포착되어 있는 「右大臣實朝」에서의 「滅亡」의 觀念이 더없이 아름답게 어머니를 통해 具體化되었고, 이 어머니의 存在는 「斜陽」이라는 小説의 主調低音으로 作品의 基

9) 上掲書

10) 上掲書

11) 上掲書

12) 上掲書

13) 上掲書

14) 太宰治著 「右大臣實朝」

底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들 直治의 世界는 어머니의 세계와 隣接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直治는 麻藥, 阿片, 飲酒를 일삼고 中毒이 되어 있는 Décadence이다. 麻藥 中毒期에 쓴 「夕顔日誌」 가운데서, 그는 세상의 허영, 위선에 대해 강경히 拒否하며, 항거하고 있다.

「デカダン? かうでもしなけりゃ生きてをれないんだよ。」¹⁵⁾

이처럼 自己변명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수 없다. 直治가 自己否定과 회의로 Décadence으로 빠져 들어갔음에 反해 어머니는 아무 회의도 자기부정도 하지 않고 信賴와 平和와 優雅로 一貫된 나날을 보내며 自己自身の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나 아들 直治나 두 사람이 다 生存의 基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生存을 放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共通性을 지닌 同質의 세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直治의 遺書에 그 점이 명료히 드러나 있다. 「僕には、いわゆる生活能力がないんです。僕には希望の地盤がないんです。僕は、貴族です。」¹⁶⁾ 直治에게는 太宰治 自身の 分身的인 要素가 주어져 있다. 直治는 作家 自身の 理想像이 아니라 作家 自身の 自畫像的인 面을 가지고 있다. 「僕は貴族です。」¹⁷⁾라는 遺書 中の 말에서 太宰治의 소위 「撰ばれてあることの恍惚と不安」¹⁸⁾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貴族의 實質은 무엇일까. 生存을 위해 自己 同一性을 放棄해버리는 世俗物에 대해, 生存을 超越한, 自己自身の 純粹 同一性을 絶對로 放棄하지 않는데에 貴族의 實質이 있다고 太宰治는 確信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生存에 대한 미련이나 生命에의 執着이 없이 從容히 自然的인 죽음, 即 滅亡을 受容하고, 理想的인 貴族 本然의 모습을 固守하였다. 거기에 비해 아들은 몸부림과, 회의와, 방황, 집착 등을 통해 안간힘을 쓰다 결국은 어머니의 세계인 滅亡의 領域으로 回歸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 삶보다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頬が蠟のようにすべすべして、薄い唇が幽かにゆがんで微笑みを含んでいるようにも見えて、生きているお母さまより。なまめかしかった。私は、ピエタのマリアに似ていると思った」¹⁹⁾

昭和二十年 太宰治는 故郷인 青森에 歸郷했었고 그 무렵에 榎本의 戯曲全集을 탐독하고 희곡을 쓰고 싶은 意慾이 생겼다. 敗戰後 「冬の花火」「春の枯葉」 등의 희곡을 썼으며 드디어 榎本の 「櫻花園」과 日本의 敗北, 故郷의 名門인 本家の 沒落등이 契機가 되어 「斜陽」을 썼으리라고 생각된다. 昭和二十一年에 친구와 선배들에게 보낸 書簡에는 그러한 作家의 생각이 表示되어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生存을 위해 약삭빠르게 民主主義一倒가 되어 아우성치는 世俗에 대해 씩씩한 마음을 금치 못해

15) 太宰治著 「斜陽」

16) 上掲書

17) 上掲書

18) 太宰治著, 창작集 「晩年」中 葉에서

19) 太宰治 「斜陽」

「いま日本で、保守の態度が一ばん美しく思はれます。」²⁰⁾

라고도 했고, 또

「保守派になれ、保守は反動に非ず現實派なり。チエホフを思へ。」²¹⁾ 『櫻の園』を忘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いま最も勇氣のある態度は保守だと思ひます。」²²⁾ 「また東北へおいでの折には、どうか足をのばして、津輕へもお立ち寄り下さい。没落寸前の櫻の園をごらんにいれます。」²³⁾

라고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滅亡에 관해서 河盛好藏에게 自己가 『滅亡の民』라고 생각된다고 말하고도 있다. 戰後の 浮薄한 民主主義禮讚에 대한 경멸이 反動으로, 그 反動이 保守와 結合하고 唾棄의 「櫻花園」의 影響을 받아 小説 「斜陽」을 執筆하게 된 하나의 原動力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²⁴⁾

2.

어머니에게 假託된 滅亡의 美學的 主題에 壓倒되어, 두번째로 提示된 主題는 보기에 따라서는 애매모호하기 까지한 感이 없지 않으나 作家로서는 하나의 脫出口로서 設定했다고 생각된다. 이 主題는 딸 かず子が 말고 있으며, 아들 直治도 이 主題에 가담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既存의 常識과 秩序에 대한 拒逆과 挑戰, 生의 執着 등이 어머니의 세계와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는 現實性을 띄고 있다. かず子에 依해 이루어지는 어머니의 世界와의 訣별은 곧 어머니가 상징하는 滅亡의 美的 犠牲 위에서 시작한다. 딸 かず子は 敬愛하고 있던 어머니의 生存時에 이미 어머니가 상징하는 美的 世界를 삼켜 먹으려는 독사가 자기 속에 棲息하고 있음을 感知한다.

「この山莊の安穩は全部いつはりの見せかけに過ぎないと、私はひそかに思ふ時さへあるのだ。これが私たち親子が神さまからいただいた短い休息の期間であったとしても、もうすでにこの平和には、何か不吉な、暗い影が忍び寄って來てあるやうな氣がしてならない。お母さまは幸福をお裝ひになりながらも、日に日に衰へ、さうして私の胸の中に棲む、母を亡ぼす蠅が宿り、お母さまを犠牲にしてまでふとり、自分でおさへてもおさへても太り以下略」²⁵⁾

かず子の 内部에서 肥大해지는 독사가 表象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가 상징하는 滅亡의 美的

20) 井伏鱒二에게 보낸 書에서 簡饗庭孝男의 「太宰治論」의 거

21) 堤重久에게 보낸 書簡에서 上掲書의 거

22) 小田嶽夫에게 보낸 書簡에서 上掲書의 거

23) 貴司山治에게 보낸 書簡에서 上掲書의 거

24) 饗庭孝男, 「太宰治論」의 거

25) 太宰治, 「斜陽」

26) 太宰治, 「斜陽」

27) 上掲書

28) 上掲書

世界와의 결별과, 生存을 위한 執着에 대한 努力, 바로 그것이다.

어머니의 죽음과 同時에 「전투, 開始」²⁶⁾라고 속으로 외치며 희망없는 不義의 戀愛를 위해 미친듯 성급히 서두르며 나름대로의 道德革命의 길로 치닫는 딸 かず子에게 假託된 第二의 主題가 第一의 主題를 壓倒했다면 이 小説의 方向은 社會問題를 다루는 쪽으로 기울어 버렸을 것이나, 太宰治의 作家的 氣質이 告發的이라기 보다는 呼訴的이고 外向的이라기 보다는 內向的인 것이었기에, 그러한 方向으로 이 小説이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かず子の 能動的인 生애의 執着과 生애 對한 肯定은 힘차고 野性的이어서 從來의 太宰治의 文學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새로운 典型이다.

「人間は戀と革命のために生れて來たのだ。あさましくてもよい。私は生き残って、思ふ事をしとげるために世間と争って行かう。」²⁷⁾

라는 立場을 取하는 딸 かず子は

「こひしい人の子を生み、育てる事が、私の道德革命、どこまでも争ひ、太陽のやうに生きるつもり。」²⁸⁾

라고 披瀝한다. 太宰의 大部分의 作品에서 볼 수 없는 生의 肯定的 面을 かず子の 人間像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3.

「斜陽」의 第三의 主題는 母性의 Image 라고 할 수가 있다. 第一主題인 滅亡의 美學과 아울러 母性의 Image 는 太宰治 文學의 基層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리고 그 母性 image 는 初期作品부터 싹뚝고 斜陽에서 完成의 境地에 達했다고 본다. 以下에 斜陽 속에서 母性 image 가 어떻게 反映되어 있나 考察해 보기로 한다.

우선 추악한 拒逆과 방황끝에 自殺한 直治의 遺書에는 母性을 박탈당한 者의 生으로부터의 孤絶이 表現되어 있다.

「姉さん。僕には、希望の地盤がないんです。さようなら。結局、僕の死は自然死です。人は、思想だけでは、死ねるものではないのですから。それから、一つ、とてもてくださいお願いがあります。ママのかたみの麻の着物。あれを姉さんが、直治が來年の夏に着るようと縫い直して下さったでしょう。あの着物を、僕の棺の中に入れて下さい。僕着たかったんです。以下略」²⁹⁾

人間은 生의 地盤인 母性을 박탈당할때 生으로부터 孤絶된다. 따라서 直治의 自殺은 自然死的 自殺이라고 할 수가 있다. 直治에게 삶의 희망을 준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어머니가 죽은 후 直治는 精神의 支柱를 상실하고 自殺의 비극 속으로 빠진다.

29) 上掲書

30) 上掲書

「僕は、もっと早く死ぬべきだった。しかしたった一つ、ママの愛情。それを思ふと、死ぬなかった。人間は、自由に生きる権利を持ってゐると同様に、いつでも勝手に死ぬる権利をもっているのだけれども、しかし、母の生きてゐるあひだは、その死の権利は留保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僕は考へてゐるんです。それは同時に、母をも殺してしまふ事になるのですから。」³⁰⁾

다음으로 かず子에 依해 完成되는 偉대한 母性の image 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約束없는 미래에 絶望하고 밤낮을 飲酒로 지내는 妻子가 있는 作家와의 不義의, 그러나 自發적인 戀愛로 私生兒를 受胎한 かず子は 버림받은 男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どうやら、あなたも、私をお捨てになつたやうです。(中略)けれども、私は、幸福なんです。私の望みどほりに、赤ちやんが出来たやうでございまの。私は、いま、いっさいを失つたやうな気がしてゐますけど、でも、おなかの小さい生命が、私の孤獨の微笑のたねになってゐます。けがらしい失策などは、どうしても私には思はれません。この世の中に、戦争だの平和だの貿易だの組合だの政治だのがあるのは、なんのためだか、ご存じないでせう。だから、いつまでも不幸なのですわ。それはね、それはね、教へてあげますわ。女がよい子を生むためです。私には、はじめからあなたの人格とか責任とかをあてにする気持はありませんでした。私のひとすぢの戀の冒険の成就だけが問題でした。さうして、私のその思ひが完成せられて、もういまでは私の胸のうちは、森の中の沼のやうに静かでございます。私は、勝つたと思つてゐます。マリヤがたとひ夫の子でない子を生んでも、マリヤに輝く誇りがあつたら、それは聖母子になるのでございます。」³¹⁾

위의 引用文은 참으로 母性 image 의 完成의 境地이라고 할 수 있으며 佐古純一郎은 그의 太宰治論에서 日本 리얼리즘文學 가운데서 例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思想이라고 評했다.³²⁾

人間の 삶의 意欲과 幸福, 平和 등 이 모든 것은 母性の image 와 連結된다고 하는 作家 太宰治의 思想이 뚜렷이 表現되어 있다. 「斜陽」의 かず子は 生の 地盤인 母性を 박탈당하나 女性이기 때문에 自己 自身이 母性이 되는 길을 택하여 生을 持續하는 힘을 획득한다.

「こいしい人の子を生み、育てることが、私の道徳革命の完成なのでございます。(中略)私は私の革命のために、大夫で生きて行けそうです。」³³⁾

그리운 사람의 子息을 낳고 키우는 일이 그녀의 道徳革命의 完成이며, 그것이 完成되기 위해 근세에 살수 있으리라는 生の 보람과 희망을 確信한다. 그러나 男性인 直治에게는 母性이 되어 生の 原動力을 회복하는 길도 없이 自然死的인 自殺의 悲劇을 택하게 된다.

「私はお庭の隅の御堂の奥にしまつてある藏書の中から、ローランソンの畫集を取り出して來ようと思つて、お庭へ降りたら、芝生の上を、蛇が、ゆっくりゆっくり這っている。朝の蛇と同じだった。ほっそりした、上品な蛇だった、私は女蛇だ、と思つた彼女は靜かに横切つて、野ばらの陰まで行くと立ちどまつて

31) 上掲書

32) 佐古純一郎著, 「太宰治論」의거

33) 太宰治, 「斜陽」

首を上げ細い焰のような舌をふるわせた。そうして、あたりを眺めるような恰好をしたが、しばらくすると、首を垂れ、いかにも物憂げにうずくまった。私はその時にも、ただ美しい蛇だ、という思いばかりが強くて、やがて御堂に行って畫集を持ち出し、かえりにさっきの蛇のいたところをそっと見たが、もういなかった。夕方ちかく、お母さまと支那間でお茶をいただきながら、お庭のほうを見ていたら、石段の三段目の石のところに、けさの蛇がまたゆっくりとあらわれた。お母さまもそれを見つけ、“あの蛇は？”とおっしゃるなり私のほうに走り寄り、私の手をとったまま立ちすくんでおしまいになった。そう言われて、私も、はっと思い當り、“卵の母親？”と口に出して言ってしまった。“そうそうよ。”お母さまのお聲はかすれていた(中略)石の上に、物憂げにうずくまっていた蛇は、よろめくようにまた動きはじめ、そうして力弱そうに石段を横切り、かきつばたのほうにはいって行った。“けさから、お庭を歩きまわっていたのよ。”と私が小聲で申し上げたら、お母さまは、溜息をついてぐたりと椅子に坐り込んでおしまいになって、“そうでしょう？ 卵を捜しているのですよ。可哀そうに。”と沈んだ聲でおっしゃった。(中略)夕日がお母さまのお顔に當って、お母さまのお眼が青いくらいに光って見えて、その幽かに怒りを帯びたようなお顔は飛びつきたいほどに美しかった。」³⁴⁾

이상의 引用은 かず子와 동네아이들이 불태워 땅에 매장한 뱀알의 어미뱀인듯한 뱀에 관한 묘사이나 여기에는 母性的 image가 더없이 슬프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어미 뱀과 斜陽的 어머니의 image가 혼연일치가 되어 저녁 노을로 스며든다. 이 小説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情景中の 하나로 꼽힐 수 있으며, 母性 image를 바탕으로 그려진 이 部分은 새끼도 아닌 알을 잃고 온 종일 찾아 헤맨 끝에 기진맥진한 어미 뱀의 憂愁와 어머니의 한숨과 夕陽의 외로움이 神秘로운 아름다움을 자아 낸다.

以上 보아온 바를 통해 太宰治의 母性的 image가 「斜陽」의 世界를 크게 支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宇宙나 大地와 같이 「斜陽」을 지탱하고 감싸고 있다. 이러한 太宰治의 母性 image는 이미 이 章의 서두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太宰文學의 初期作品을 비롯하여 그의 모든 時期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그의 二十歲 時의 習作인 「彼等とそのいとしき母」에서 포근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인 鄉愁를 表現한 部分을 指摘해 본다.

「三日目からは獨りで立って厠に行けるやうに成ったが母はまだ床から彼を離したからなかった。見榮坊の彼には、便器を用ひるのが可成の苦痛だったが温和しく母の言ふなりにして居た。三日目の晝から何が食ひたいな、と聞かれた時、『小豆粥』と言って母を困らせた。小豆粥は腹に悪いから何か他のもので、と言はれて「そんならごしょいも」と、わざと方言を交へて答へた。下品なもの許り食ひたがると、兄は笑った。母はすぐ濁びた馬鈴薯を二つ三つ新聞紙に包んで買って來た。彼は先刻の事を又思ひ出して見るのだった。——新宿の歩道の上で、小さな石塊がのろのろ這って歩いてゐるのを見たのだ。

——石が這って歩いてるな。たださう思って居た。併し、その石塊は彼の前を歩いてる薄汚い子供が、糸で結んで引摺って居るのだといふ事が直ぐ判った。考へれば考へる程淋しかった。子供に欺かれたのが淋しいのではない。そんな天變地異をも平氣で受け入れ得た彼自身の自棄が淋しかったのだ。——若しか

34) 太宰治「斜陽」

すると、氣が變になるのかも知れない。彼はふと頭を上げると人混の中に揉まれて居る母の瘦せこけた、うしろ姿が眼に入った。彼は突然、老と死の影を其處に見た。彼は今こそ總てを知った。母が俄かに上京した事も、そして又仲々故郷に歸りたがらない事も、一切が母の後姿で判るのだった。」³⁵⁾

母성에 대한 鄉愁는 太宰治의 初期作品에서도 如實히 반영되어 있음을 위의 引用에서도 알 수 있다. 「斜陽」전에 쓰여진 「冬の花火」에서

「日本にはもう世界に誇るものがなんにも無くなったけれど、でも、あたしのお母さんは、あたしのお母さんだけは…以下略」³⁷⁾

로 表現된 어머니의 image 는 「斜陽」에서의 「日本で最後の貴婦人」인 어머니像으로 연장되어 있다. 따라서 太宰治의 母性的 image 는 유독 「斜陽」의 세계에서만 主題로서 클로즈업(close-up) 되어 있는 급작스러운 현상이라기 보다 그의 文學과 生涯를 통해 성장하여, 말기 작품인 「斜陽」에서 完成과 원숙의 경지에 달했다고 본다. 作家는 항상 처녀작을 향해 성숙한다는 말이 太宰의 경우에도 역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다.

Ⅲ. 結 語

太宰治 文學의 총결산적 結晶이라고 할수 있으며, 戰後에 쓰여진 그의 末期作品 「斜陽」은 그의 대표작 「人間失格」과 더불어 太宰治의 이름을 日本의 近代 및 現代文學上에서 確固不動한 것으로 만들었고, 그의 죽음에 依해 이 두 作品은 한층 더 鬼氣를 띄게 되었다. 비단 末期의 이 두 作品뿐 아니라, 그의 대부분의 作品은 作者의 죽음을 必要不可避, 또는 必要不可缺한 것으로 할만큼, 거의 모두가 遺書的 性格의 文學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죽음과 滅亡이 美德으로 表現되고, 生에의 執着이 그 反對의 것으로 되어 있는, 即 아픔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斜陽」의 主題는, 일반독자 대중들에게 受容된 것처럼 반드시 戰後 日本의 混迷와 絶望속에서 생긴 沒落貴族階層의 悲哀나 激變한 戰後の 社會倫理문제를 다루는데 그치는, 甘美로운 感傷性이나 皮相的社會問題가 그 全部가 아닐뿐더러, 하물며 核心은 물론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斜陽」의 世界를 支配하는 核心的이고 強力한 主題를 登場人物의 性格과 思想을 통해 考察해 본 結果, 세가지 要素로 압축 시킬 수 있다.

첫째, 第一의 主題로 「어머니」에게 假託된 滅亡의 思念을 들 수 있다.

作品中の 「어머니」는 第一章부터 出現하나 第六章의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줄곧 現實에서

35) 太宰治, 彼等とそのいとしき母

36) 太宰治, 冬の花火

遊離되어 살고 있으며, 本質적으로 現世 밖에 存在하는 滅亡의 象徴이다. 現實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으로만 意義가 부여되어 있다. 치사하고, 인색하고, 안달스럽고, 고집덩이인 악착스런 人間性의 對局에 位置해 있는 無償의 精神의 소유자로서 太宰治의 所謂 滅亡의 美學의 具現이다. 이 「어머니」의 存在가 「斜陽」의 主調低音으로 作品의 基底를 이루고 있다. 太宰治의 소위 滅亡의 美學은 戰後에 갑작스럽게 생겨서 새삼 이 作品을 통해 具現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미 戰爭中에 쓴 그의 中期作品 「右大臣實朝」의 主人公 「實朝」의 無垢한 image에 의해 「アカルサハ, ホロビノ姿」³⁷⁾라는 滅亡의 美學이 藝術적으로 具現되었었다. 「斜陽」의 어머니는 實朝의 女性化같은 인상을 받는다.

「悲しみの限りを通り過ぎて, 不思議な薄明りの氣持」³⁸⁾

라는 「斜陽」가운데의 表現에는 모든 것을 잃고 체념하며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平和로운 幸福感이 깃들여 있다. 이러한 無心의 境地가 곧 太宰의 滅亡의 美學이며, 그것은 어쩌면 日本 古典文藝思想 中の 「かるみ」와도 일맥상통 하는 바가 있다. 「斜陽」以前에 쓰여진

「パンドラの匣」에도 「すべてを失ひ, すべてを捨てた者の平安」³⁹⁾

이라고 表現된 바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斜陽」뿐 아니라 太宰治의 많은 作品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太宰治의 理想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어머니에게 假託된 滅亡의 美와 對照가 되는 딸 「かず子」의 立場은 이 作品의 第二의 主題로서 生애의 執着과 既存秩序에 대한 抗拒라는 主題로 提示되어 있다.

「人間は戀と革命のために生れて來たのだ, 「あさましくてもよい. 私は生き残って, 思ふ事をしとげるために世間と争って行かう.」, 「古い道徳とどこまでも争ひ太陽のやうに生きるつもりです.」⁴⁰⁾

라고 披瀝하는 딸 かず子의 生애에 대한 態度는 能動的이고, 野性的이며, 生애의 執着이다. 宿命的 滅亡을 從容히 받아들이는 「어머니」와는 對照的이라 할 수 있으나, 第一의 主題에 壓倒된 感이 있다. 끝으로 이 作品의 第三의 主題에 대해 言及함으로써 本稿를 매듭지으려 한다. 第三의 主題는 太宰 文學의 初期의 習作에서 싹터, 출근 太宰 文學의 底流가 되어온 母性의 image이다. 이 母性의 image는 「斜陽」에 와서 크게 育成되고, 完成의 境地에 이르렀다.

「マリヤがたとひ夫の子でない子を生んでも, マリヤに輝く誇りがあつたら, それは聖母子になるのでございませう.」⁴¹⁾

37) 太宰治, 右大臣實朝

38) 太宰治, 「斜陽」

39) 太宰治, パンドラの匣

40) 太宰治, 「斜陽」

41) 太宰治, 「斜陽」

위의 引用은 母性 image 의 完成의 경지를 如實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斜陽」의 世界를 宇宙와 大地의 次元에서 支配하고 감싸고 있는 巨大한 主題는 바로 第三의 主題, 即 母性의 image 이며, 太宰治는 그의 生涯와 文學을 통해 母性에의 향수와 동경을 志向하였던 것 같다.

參考文獻

1.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太宰治」, 日本文學研究資料刊行會編, 有精堂, 昭和 50年(1975)
2. 「批評と研究」, “太宰治”, 文學批評の會編, 芳賀書店, 昭和 50年(1975)
3. 「太宰治」, 三枝康高, 有信堂, 1975年
4. 「太宰治論」, 饗庭孝男, 講談者, 昭和 51年(1976)
5. 「太宰治論」, 佐古純一郎, 審美社, 昭和 50年(1975)
6. 「太宰治」, 奥野健男, 文藝春秋社, 1975年
7. 「太宰治」, 「文藝讀本」, 河出書房, 昭和52年(1977)
8. 「太宰治の精神分析」, 北垣隆一, 北澤圖書出版社, 1971
9. 「太宰治をどう讀むか」, 小野正文著, サイマル出版會
10. 「太宰治人と作品」, 別所直樹著, 清風書房出版株式會社, 昭和 44年(1969)
11. 「太宰治作品論」, 東郷克美・渡部芳經編雙文出版社, 昭和 49年(1974)
12. 「太宰治全集」, 講談社, 昭和 44年(1969)
13. 「太宰治全集」, 集英社, 昭和 50年(1975)
14. 「藝術と生活」, 平野謙, 新潮社, 昭和 51年(1976)
15. Freud, S.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in Stracheg, J. (ed), Standard Edition, Vol, 14, pp. 67-102, Hogarth, London, 1957